

#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1948-1950)\*

- 민족통합과 친일파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박 성 태\*\*

## 요약

본고는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이 민족통합과 친일파 청산 문제를 소설화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주의의 강화가 그의 문학에 끼친 영향을 고찰했다.

단정 수립 이전에 염상섭은 「이합」(1948.1)과 「재회」(1948.8) 연작에서 좌익과 중간파의 결합을, 『효풍』(1948.1.1-11.13)에서는 분단을 극복하는 「조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전반을 아우르는 민족통합의 상상력은 『무풍대』(1949.7.1-9.25)에서 반공주의와 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축소되었고, 『채석장의 소년』(1950.1-6)에 이르러 그것은 선량한 부르주아와 믿음만한 전제민 사이의 계급적 통합으로 굴절되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견제하며 당장의 사회혼란의 해결을 강조했다. 염상섭은 「혼란」(1949.1)에서 친일파 출신과 친일파 청산 주창자 사이에서 통합을 피하는 중립적 초점인물 창규를 배치했다. 통합의 실패와 함께 소설에서 부각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치안불안이다. 「혼란」을 통해 친일파 청산에 대한 그의 거리감을 우회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두 파산」(1949.8)에서 그는 반민법을 민족정기 확립이 아니라 신여성 욕임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타락하는 계기로 설정했다. 이후 그는 『난류』(1950.2.10-6.28)에서 배금주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계산 불가능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여성 덕회를 등장시킨다. 그러나 덕회를 통해 형상화된 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561)

\*\* 고려대학교 강사

상적 여성상은 점차 극단으로 치달는 한반도의 정세를 외면한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염상섭, 단정 수립, 해방기 중간파, 「혼란」, 「두 파산」, 『무풍대』, 『난류』, 『채석장의 소년』

목차

1. 단정 수립과 보도연맹 가입
2. 이념적 연대에서 계급적 통합으로
3.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친일파 청산
4. 결론

## 1. 단정 수립과 보도연맹 가입

해방공간에서 염상섭은 남북협상과 민족자주를 주창하며 중도적 민족 노선을 걸었다.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의 길을 모색하던 그에게 있어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한 분단의 기정사실화는 쓰라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반공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해방공간에서 중간파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중도를 좌익으로 몰아세우고 낙인 찍는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염상섭은 반공교화단체인 보도연맹이 문화실 소속 문화인들을 동원하여 주최한 국민예술제전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sup>1)</sup>

식민지시기에 프로문학론자들과 누구보다 치열하게 논쟁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후에도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적이 없고 월북도 감행하지 않았던 염상섭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당대에 팽배했던 반공주의의 영향력을 방증한다. 단정 수립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주의가 염상섭에게 사상의 위축이나 자기검열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1) 「국민예술제전 보편주최로 시공관서」, 『동아일보』, 1950.1.4.

끼쳤으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김규식노선의 이데올로기가 빠져 버린” 이후 “서울 중산층의 삶의 감각, 그 가부장제적 보수주의만이”<sup>2)</sup> 남았다는 김윤식의 지적도 있거니와, 『효풍』 이후 염상섭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일상성으로 함몰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sup>3)</sup>

그러나 염상섭 문학의 핵심을 ‘가치중립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근대적 지식인이자 시민적 정치의식을 지닌 염상섭의 면모가 부각되고,<sup>4)</sup> 민족해방을 위해 사회주의와 협력했던 그의 행보에 대한 후속 연구들<sup>5)</sup>이 진행됨에 따라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변화했고, 해방이후 염상섭 문학에 대한 논의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다. 이제 해방기 염상섭의 중도적 지향은 ‘무당파로서의 중립성’이 아니라 ‘중간파로서의 정치의식’으로 해석된다. 가령 해방기 염상섭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효풍』(1948.1.1-11.13)과 관련해서는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외세의 추종자들과 맞서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이 부각되고,<sup>6)</sup> 당대 문화적 중간파들이 재현되었다<sup>7)</sup>는 식의 논의가 제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염상섭 문학이 쇠말주의로 후퇴했다는 범박한 논리가 어느 정도 극복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통일 민족국가 건설이 요원해지는 시대적 상황이 염상섭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해방기 염상섭 문학에 대한 대립적 논

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818면.

3) 권영민,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해방 직후의 문학활동을 중심으로」, 염상섭,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324-326면.

4)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5) 박현호, 「생활하는 ‘주의자들’—(김병화)전으로 읽는 『삼대』,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과 혁명’의 사진」,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박성태,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의 자유주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6)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7) 장세진, 「재현의 사각지대 혹은 해방기 ‘중간파’의 행방」,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의들의 종합적 토대 위에서, 그의 문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포착해내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단정 수립 이후에도 나름의 비판적, 대안적 사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주의의 강화로 인해 단일민족국가 건설의 상상력을 표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 하에서 염상섭 문학의 정치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의 작품들 중 「혼란」(1949), 「두 파산」(1949), 『무풍대』(1949.7.1.-9.25), 『난류』(1950.2.10.-6.28), 그리고 『채석장의 소년』(1950)을 대상으로 그가 두 가지 주제를 소설화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민족통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친일과 청산의 문제이다.

우선 염상섭이 당대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민족통합의 문제를 소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효풍』의 결말부에서 중도적 인물인 병직은 앞으로 “조선학”<sup>8)</sup>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병직의 “조선학”은 삼팔선을 “소리 없이 터”트리고 “두 세계가 한데 살 방도”를 발견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효풍』에서의 희망적인 분위기는 『무풍대』에서 사그라지고 만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풍대』는 더 이상 “효풍”이 불지 않는, 다시 말해 민족통합의 비전이 희미해지는 시대 분위기를 떠올리게 만든다.<sup>9)</sup> 『무풍대』 이후에 민족통합과 관련된 주제의 식은 『채석장의 소년』<sup>10)</sup>에서 다시금 발견된다.<sup>11)</sup> “해방공간에서의 시대

8)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35-336면. 이하 본문에서 염상섭의 작품을 인용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겠음.

9) 『무풍대』와 관련해서는 『효풍』에서 제시된 ‘분단 극복을 위한 조선학’의 비전이 『무풍대』(1949.7.1-9.25.)에서 ‘부르주아 독재의 혼탁상을 그려내기 위한 남한학’으로 축소되었음을 밝힌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 (안서현, 「曉風이 불지 않는 곳—염상섭의 『無風帶』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10) 김재용은 『채석장의 소년』이 비록 만주국을 소환한다거나 아동문학의 형식을 차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서라도 “민족적 통합과 민주주의를 결부시키는 동시에 확보하려는 지향만큼은 강하게 관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적인 과제와 민족적인 전망에 대한 염상섭의 진단과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축도로 해석<sup>12)</sup>되는 『채석장의 소년』 분석을 통해 『효풍』에서 나타났던 민족통합의 이상이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그 양상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창설을 통해 대두된 친일과 청산 문제를 염상섭이 어떻게 소설화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해방 이후 친일과 청산 문제는 민족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적 과제였지만 동시에 좌우의 정치세력들이 의견의 합일을 이루지 못하는 논쟁적 지점이기도 했다. 가령 해방직후 이승만의 주도로 결성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 조선공산당이 빠지게 된 계기 중 하나도 친일과 청산 문제였다. 이승만이 대동단결을 외치며 ‘무조건 통일론’을 내세웠다면, 박헌영은 민족반역자 처리를 강조하며 ‘조건부 통일론’을 주장했고 두 세력의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sup>13)</sup> 반민특위 창설의 국면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혼란」에서는 광복 직후 만주의 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친일파와 친일과 청산 주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창규가 등장한다. 「두 파산」에서는 식민지시기에 군수품회사 취체역을 맡았던 친일파 도지사인 남편이 반민법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의 아내인 옥임이 변화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난 반민법 및 친일 문제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염상섭의 정치적 위치와 행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195면.)

- 11) 제목의 상관성만 본다면 『무풍대』 이후의 장편인 『난류』에 주목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난류』에서 염상섭은 민족통합보다는 배금주의자들의 세상에서 타락하고 속물화되지 않는 주체적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 12) 공중구,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론」, 『현대소설연구』 6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50면.
- 13) 허중, 「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대구사학』 55, 대구사학회, 1998, 7면.

## 2. 이념적 연대에서 계급적 통합으로

『무풍대』와 『채석장의 소년』에서 민족통합의 문제가 소설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단정 수립 이전에 염상섭이 어떠한 화해의 구도를 제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합」(1948.1)과 「재회」(1948.8) 연작에서 염상섭은 중도적 인텔리인 남편 장한과 친소 사회주의자인 아내 신숙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었다. 비록 둘 사이의 화해는 신숙을 “제 연줄이 없는 고장에서는”<sup>14)</sup> 못 사는 “평범한 여자”로 전략시킴으로써 그녀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말소시키고 나서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띠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좌익과 중간파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sup>15)</sup>

『효풍』(1948.1.1-11.13)의 말미에서 병직이 제시한 “조선학” 역시 이북과 좌익 계열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소설에서 중도적 노선을 견지하는 병직의 우측에는 청년단 선전부장인 김태환, 미국인 베커, 그리고 친일파이자 양조회사 사장인 병직의 부친이 배치되었다. 병직은 아버지와 태환이 대표하는 친미반소 성향의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미국인 베커와도 논쟁을 통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좌익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었다. 병직의 좌측에는 XX노동조합에 가입한 박석과 월북을 시도하는 최화순이 자리하는데, 병직은 화순을 따라 월북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월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병직이 제시한 것이 바로 “두 세계가 한데 살 방도”<sup>16)</sup>를 발견하기 위한 “조선학”이었으니, 그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남과 북, 좌와 우를 아우르는 민족통합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었다.

14) 염상섭, 「재회」,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134면.

15)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민족의식의 의미화 양상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410-411면 참조.

16)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36면.

그런데 병직이 “조선학”을 공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는 시점이 혜란의 아버지 김관식에게 “백년손”으로서 “멘헬테스트”를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연애서사의 구도에서 보자면 병직은 화순과 혜란의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실패하기는 하지만 화순을 따라 월북을 시도했으니 병직의 마음은 아무래도 화순에게 더 기울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직은 화순과 혜란 사이에서 미결정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월북 실패 이후에 병직은 다소 갑작스럽게 혜란과의 결혼을 추진한다. “화순이는 어찌구 오셨”냐는(337) 혜란의 투정 섞인 물음에 “다 만날 날 있”을 거라며 모호하게 답변한 병직은 다시 혜란에게 “우리 아버지 그늘에서도 떠나서 우리끼리만 셋방살이를 하면서라도 우선 공부를 좀 해야 하겠”다고 말한다. 혜란은 아내로, 화순은 추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됨에 따라 병직에게 있어 화순과 맺어질 가능성은 일단 소멸된다.

『효풍』은 『자유신문』에 48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연재된 작품이니, 8월 15일 단독정부 수립이 작품의 결말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이형식이 박영채와 김선형 중 한 사람과 배타적 연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모두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주체로 연대했던 것과 같이, 병직 역시 혜란과 화순 사이에서 미결정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민족통합의 “조선학” 연구에 대한 동참을 모두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병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연재 초기에 염상섭이 삼각관계의 결말을 어떻게 구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혜란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족통합을 위한 조선학을 연구하겠다는 병직의 선언은 일단 분단 현실을 수용하되 추후 통일의 실현에 대한 긍정적 전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적 선택으로 읽힌다. 「재회」에서 사회주의자 신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말소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효풍』에서 병직이 드러낸 “조선학”에 대한 의지 역시 좌익 계열의 인물들이 부재하는 공간에서 표명된다는 점도 “조선학”의 통합적 의미를 축소시키

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중간과의 위치에서 좌익을 포괄함으로써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통합의 상상력을 표출했다는 사실의 가치는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효풍』 이후는 어떠했을까? 염상섭은 『호남신문』에 1949년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무풍대』를 연재한다. 『효풍』 연재가 끝나갈 즈음만 하더라도 염상섭은 “문학인은 이러한 혼돈기일수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스스로 심두(心頭)에 전개하면서 종용부박(從容不迫)한 태도로 정진하여나갈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sup>17)</sup>면서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무풍대』를 창작하던 시기에 그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한 고역이”<sup>18)</sup>라면서 “붓을 들기가 점점 더 소심하여지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탓인지도 모르겠다”며 자조했다.

『무풍대』는 5.10 총선거와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입춘 즈음의 서울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때의 서울은 민족통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시공간이다. 서사의 골자는 원영, 명호, 기창의 삼각관계를 축으로 구성되지만 염상섭 소설이 종종 그러하듯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욕망과 미묘한 감정 등은 소설의 주된 요소가 아니다. 이 연애를 둘러싼 온갖 군상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단정 수립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 바로 『무풍대』이다.

원영에게는 이복오빠 태영이 있는데 그는 “나이는 아직 서른 너댓밖에 안 되어도, 5.10 선거에 고향에서 입후보를 하였던 야심만만한 청년 정객이다.”<sup>19)</sup> 일제말기에 황민화 운동단체에서 중견간부를 역임한 친일파 출

17) 염상섭, 「현 문단 창작평-질의 문제」(『자유신문』, 1948.11.5.),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2014, 112면.

18) 염상섭, 「나와 소설」(『신인』, 1949.9.), 한기형·이혜령 편, 같은 책, 149면.

19) 염상섭, 「무풍대」 3, 『호남신문』, 1949.7.3.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본문 괄호 안에 연재



신인 그는 해방기 부르주아 기회주의자의 전형적 면모를 보인다. 친일파 출신이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비판적으로 그려지는 지점은 그의 위선이다. 태영은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땅을 학교나 소작인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며 “교육사업이나 농지개혁을 자진해서”(8회, 7.12.) 하려 하는데 그것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요 담 선거에 투표수를 많이 얻자면 인심을 써야 하겠으니까, 학교나 고아원 같은 데 기부할 할까? 작인들에게 조금씩 퍼 나눠 줄까?” 계산하는 태영의 모습에서 선의지나 정의감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영은 태영이 하인 덕봉이를 하대하고 그의 품삯도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독지(篤志)라는 것이 우수꽝스럽”다고 비판하며 태영과 거리를 둔다. 태영은 원영이 명호와 교제하길 원하지만, 여자 의과대학 졸업을 앞둔 원영은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명호에게 대해서나 기창이에게 대해서나, 어디까지든지 자유로운 입장이라고”(2회, 7.2.) 여긴다. 연상섭은 원영을 정신적으로 태영과 분리된 주체적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녀의 시선을 통해 주위의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를 확보한다.

원영을 좋아하는 명호는 원영 및 태영과 십여 년 동안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 인물이다. 정부수립 이후 시보에서 검사로 승진한 명호는 원영에게 “부쩍 달려드는 기색”을(5회, 7.8.) 보인다. 그러나 원영은 명호와의 결혼을 꺼리는데 왜냐하면 원영이 볼 때 명호는 “자기를 제 차지, 제 사람이 거니 하고 감독을 하려 들고, 공연한 의심을 내거나 구속을 하려”드는(32회, 8.28.) “완고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호는 기창의 아내 송정임을 비판할 때도 그녀의 정치의식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정치운동에 분주히 돌아다니고 검찰청에까지 끌려가고 하면야 첫째 살림이 되나. 남편이 좋아서 시킬 이는 없고 구순히 지

---

횃수와 날짜만 병기하겠음.

낼 수 없"다며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파생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차용한다. 그러니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인 원영이 명호와 결혼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원영과 기창의 연애서사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기창에게는 아내 송정임이 있다. 송정임은 학창시절에 푹푹하기로 유명했고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며 해방 이후에는 여성단체 간부로 신문에 가끔 실리기도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태영이 송정임에 대해 "가끔 정당관계로 만나지만 역시 푹푹한 여자야. 소위 중간파라고 하지만 우익 여성으론 아마 제일 아는 축일"(29회, 8.25.) 거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전도유망한 여성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정임은 남북협상에서 이북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로 풀려나는데, 이때 기창의 모친은 빨갱이로 낙인 찍힌 며느리 송정임을 집에서 쫓아내 버린다. 빨갱이 낙인찍기로 인해 송정임과의 생활이 어려워진 기창은 "유 처취처를 한다든지 작은 마누라를 연자면 그만이지마는 적어도 원영이를 상대로 하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27회, 8.23.) 여긴다.

기창의 집에 "자본론이니 유물사관이니 하는 어려운 좌익서적들이"(20회, 8.13.) 있는 것을 보면 기창과 송정임은 사상적으로 우경화되지 않은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영이 증언해 준 것처럼 송정임은 좌익이라기보다는 중간파이다. 그런 송정임을 좌익 빨갱이로 몰아세운 사건은 반공주의가 강화되는 단정 수립 이후의 정국을 반영한다. 남북협상에서 성과를 내고자 했던 시도조차 이적 행위로 곡해되는 상황에서 통일의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단정 수립 이후의 남한은 중간과 정도의 정치의 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우경화된 사회라는 것을 염상섭은 송정임의 경우를 통해 비판적으로 형상화한다.

기창이 원영에게 "선생을 처음 뵈옵던 첫순간에" "환희와 충격"을(52회, 9.21.) 받았으나, "박명호에 대한 십년간 정리와 의리를" 지키라는 편지를 보내고 이에 혼란스러워 하는 송정임이 기창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

『무풍대』의 연재는 중단된다. 하지만 송정임이 쫓겨난 상황에서 원영과 기창이 연인으로서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민족통합의 관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영과 기창에게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두 사람의 결합이 대안적 정치세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무풍대』에서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정신이 발견된다. 문학을 전공하려다 의학을 전공한 원영은 좋은 문학이 “사회 결합의 병원균을 발견하는 현미경이”(41회, 9.8) 된다는 나름의 문학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풍대』의 문학적 가치를 변호하는 염상섭의 말처럼 들린다.

“사실 좋은 작품은, 선을 하는 인생이나, 생활의 고통과 영혼의 숨소리를 듣는 청진기도 되고, 사회결합의 병원균을 발견하는 현미경도 되죠…….”(41회, 9.8)

『무풍대』는 『효풍』의 “조선학”과 같은 민족통합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되, 친일과 출신 해방기 부르주아 기회주의자와 거리를 두며 반공주의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원영을 통해 점차 우경화되는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개인의 시선을 남긴다. 『무풍대』 연재는 56회로 중단되었다. 『무풍대』 연재 중단의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우선 표면적인 이유로는 염상섭의 대학 강의를 들 수 있다. 9월초부터 염상섭은 성균관대에서 “창작지도, ‘국문학’ 등의 과목을 강의”<sup>20)</sup>를 통해 “학생 사이에 크게 호평을” 샀다고 전해진다. 10월에는 성균관대에 더해 “연희대학의 초청으로 창작법 강의를 맡아보게”<sup>21)</sup> 되니, 강의를 많아지면서 『무풍대』 연재를 지속하기는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강의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한사회 내부의 반공주의 강화와 반공 매커니즘이 문단에 미친 영향”<sup>22)</sup>

20) 「문화인동정」, 『경향신문』, 1949.9.19.

21) 「문화인동정」, 『경향신문』, 1949.10.15.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리얼리스트이자 중도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주의 계열까지 포괄하는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포착해낼 수 없다는 절망감 역시 『무풍대』 연재 중단의 한 내적 계기로 추정된다. 민족통합의 바람이 멈춘 곳에서 시작된 이 소설은 결국 종착지에 닿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만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민족통합의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염상섭의 마지막 작품은 『채석장의 소년』이다. 이 작품은 1950년 1월부터 『소학생』에 연재된 아동문학인데 염상섭이 아동문학을 창작한 까닭은 우선 “이테올로기적 곤혹스러움을 피하려고 했던 것”<sup>23)</sup>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하자면 계몽적, 교육적 목적도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소학생』은 당대에 많은 소년소녀 독자들을 확보한 잡지였다. 1946년 2월 11일 주간지로 창간된 『소학생』은 47년 5월부터 월간지로 체제가 변경된 후 6.25 발발로 인해 발간이 중지되는 통권 79호까지 꾸준히 출간되었는데, 이는 애독자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대의 아동문학 관련 전문 잡지 『아동문화』에 실린 「아동잡지에 대한 우견」에서는 『소학생』에 대해 소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sup>24)</sup> 민족의 미래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소년소녀 독자들에게 계몽적 서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염상섭으로 하여금 『소학생』에 작품을 연재하게 만든 또 하나의 동력이었을 것이다.

『채석장의 소년』은 김완식과 김규상, 그리고 이영길 세 소년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서사의 축으로 삼는다. 김완식은 만주에서 생활하다 해방 이후 월남하여 방공호에서 어머니와 누나 김완희와 함께 살아가는 전제

22) 안서현, 같은 글, 160면.

23)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같은 글, 177면.

24) 김유진, 『『소학생』의 성격 연구—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69-70면 참조.

민인 반면, 김규상은 용산 고려방직 회사 전무의 아들이다. 소년들 사이에 설정된 계급적 간극은 외모 묘사에서부터 도드라진다. 김완식은 “땀에 전 셔츠에 노닥노닥 기운 누런 잠방이를 입은 자식”<sup>25)</sup>이자 “깜둥이 같은 채석장의 어린 노동자”이지만, 김규상은 손바닥이 부드러우며 “어느 맥도런님인지 모르는 해사한 소년”이고, 이영길 역시 “스타킹에 축구화를 신”었다.(10) 거주공간 역시 이들의 계급적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김완식이 방공호에 거주하는 반면 김규상은 “수목이 우거지고 높다란 이층 양관”에서(24) 살기에 완식은 수치심에 규상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감추려 한다.

명백한 계급적 간극이 설정된 상황에서 영길이 찬 공에 완식이 맞고 쓰러지자 이에 규상이 완식을 간호함에 따라 계급적 간극을 넘어서는 우애의 형성이 시작된다. 부유하며 선량한 규상이 먼저 가난한 완식에게 다가간다는 점에서 시혜적 차원의 서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겠으나, 소설에서 완식이 수동적 인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산 꼭대기에 있는 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작년 겨울에 병으로 학교를 쉬게 된 완식은 얼른 새 학교로 전학을 가서 밀린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금, 월사금, 기부금 등을 포함하여 돈 만 원이 필요하다. 완식이 채석장에 일하러 나가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규상이 “기부금은 못 내겠다고 떼를 써보지”(67) 그랬느냐고 묻자 규상은 “남 다 하는 규칙은 지켜야지”라며 당당하게 대꾸한다.

규상이 완식에게 호의적인 반면 영길은 완식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영길은 완식과 대화를 나누는 규상에게 “넌 그깟 자식하고 무슨 이야기에 팔렸”냐며(17) 완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므로 규상과 영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전재민을 포함하여 경제적 약자인 이웃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품성에 관한 계몽적 주제의식과 결부된다. 넓게 보자

25)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16면.

면 규상과 영길이가 대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과 화해가 “당시 해계모니를 둘러싸고서 각축을 벌이던 각 정당이나 사회 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및 그 해법을 투사하는 알레고리적 장치”<sup>26)</sup>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규상과 영길이의 갈등과 화해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남북과 좌우의 민족 통합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길의 태도가 개선되는 계기는 창규의 졸도 사건이다. 반장 규상이 창규를 집에 데려다주려 하자 영길은 “제 편, 제 ‘부하’가 적에게 불법납치나 당하여 가는 듯싶어서”(107) 달려와 규상에게 시비를 거는데, 이때 규상은 영길에게 “그렇게 친한 새면, 밥을 며칠씩 굶어서,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것도”(108) 몰랐냐고 질책한다.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규상이 창규를 위해 모금을 하자고 제안하자 영길이 이에 응하며 둘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규상은 영길이 “마음이 나쁜 애”(116) 아니라 “우리가 저만 따돌려 놓구 노는가 싶어 괜히 심술을 부렸던” 거라 변호한다. 개과천선한 영길은 창규에게 쌀과 도시락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교장과 친밀한 아버지를 설득해 완식이 학교에 돈을 일부만 내고 다닐 수 있도록 돕는다.

소설은 완식의 가족이 규상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완식의 어머니가 규상의 아버지에게 가정부로 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완식 모친의 훌륭한 성품 덕분이다. 규상의 아버지는 해산구완을 위해 사람을 찾는 와중에 “해방 이후의 피난민은 들끓어 오구, 요셋 사람이란 어디 믿을 수가”(158)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완식의 어머니는 어질고 기품이 있으며 “교양 있고 사근사근한 부인”일(168) 뿐만 아니라 과거 만주에서 국민학교 선생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으므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획득한다. 게다가 완식의 모친은 규상의 새어머니와 “숙명” 동창이기도 하다.

26) 공종구, 같은 글, 150면.

『채석장의 소년』은 부르주아와 피난민의 통합을 서사화한다. 선량한 부르주아와 신뢰할만한 전제민이 둘의 훌륭한 성품을 매개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채석장의 소년』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다. 민족통합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염상섭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채석장의 소년』의 주제의식은 퇴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염상섭은 「이합」(1948.1)과 「재회」(1948.8), 그리고 『효풍』(1948.1.1-11.13)에서 중간과와 좌익의 화해와 연대의 상상력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정 수립 이후 『무풍대』(1949.7.1-9.25)에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민족통합의 상상력은 통합을 저해하는 반공주의와 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축소되었고, 『채석장의 소년』에 이르러서는 부르주아와 전제민 사이의 계급적 통합으로 굴절되었다. 물론 그것은 부르주아의 선량한 품성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도 무관하다.

### 3.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친일파 청산

해방 이후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할 때 과거사 정리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였다. 특히 친일파 청산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었다.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는 미군정기에도 진행되었다. 한국인 주도의 입법기관을 지향하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46년 12월에 개원한 남조선과도입법기관은 1947년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현 과도입의는 완전한 민의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하에”<sup>27)</sup> 인준을 거부했고 이에 친일파 청산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로 넘어갔다.

27)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조례도 인준거부」, 『경향신문』, 1947.11.28.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구성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식민지시기에 일제에 부역했던 매관자본가 박흥식을 체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sup>28)</sup>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제약을 가했다. 이승만이 내세운 명분은 삼권분립과 사회혼란, 그리고 반공투쟁이었다. 이승만은 담화문을 통해 반민특위는 “조사만에 그치고 검속을 하거나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사법과 행정부에 맡”<sup>29)</sup>기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반공투쟁 때문에 경찰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왕에 죄가 있는 자라도 아직 보류하고 목하의 위기를 정돈시켜 인명을 구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우니 이를 고려하여 협의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담화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6월 6일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습격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 이후 새로운 특위 위원장으로 한국민주당 인물이자 이승만의 단정 수립을 지지했던 초대 법무장관인 이인이 임명되고, 반민특위 폐기법안까지 통과되자 결국 반민특위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친일파 청산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친일파 변호의 논리를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광수를 꼽을 수 있다. 일제말기의 적극적 친일행위로 인해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이광수는 자전적 소설인 『나의 고백』의 부록으로 「친일파의 변」을 첨부했다. 우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일파와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치게 길었기에 친일 행위 여부, 친일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삼학사의 절개를 표준으로 단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민족에 이로운 일도 아”<sup>30)</sup>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

28) 「박흥식씨 수감 반민법 첫 발동」, 『동아일보』, 1949.1.11

29) 「반민처결지연은 불가 조속완료를 요망」, 『조선일보』, 1949.2.3.

30)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삼중당, 1971, 284면.



는 자를 좌파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었다. “친일과 숙청이란 말은 좌익에서 시작한 것”이며(287) 그것은 “민심을 이용한 것”으로 “당원을 제외”한 “유식 유산계급 전체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셋째로 그는 “건설 중에 있는 대한민국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인화(人和)”(266)라고 강조했다. 친일의 보편성과 반공주의, 그리고 인화가 바로 이광수가 내세운 친일과 변론의 골자였다.

친일과 청산 문제를 두고 이광수를 비롯한 우익 인사들이 여러 논리를 앞세워 실질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중간과였던 염상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1949년 작인 「혼란」과 「두 파산」 두 단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우선 「혼란」은 해방이후 만주 안동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지만,<sup>31)</sup> 작품의 주요 대립구도는 친일파와 친일파 청산 주창자 사이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작품 발표 당시의 정국을 떠올리게 한다.<sup>32)</sup> 게다가 이 작품이 실린 『민성』 제5권 2호의 발행일은 1949년 1월 30일이다. 전술했듯이 반민특위는 1949년 1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월 7일에 이광수와 최남선을 체포했으며,<sup>33)</sup> 반민특위를 견제하는 이승만의 담화문이 발표된 것은 2월 2일이다. 「혼란」은 아직 반민특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게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 역시 해방직후의 만주로 상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염상섭은 이 작품에서 친일파 청산 문제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룰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또한 「혼란」은 1948년 1월에 금릉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단행본 『삼

- 
- 31) 주지하듯이 염상섭은 1937년 만주로 이주했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신의주를 거쳐 귀국하기 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다. 만주에서의 행적을 소설화한 작품으로는 「첫걸음」(1946), 「모략」(1948), 「삼팔선」(1948), 「이합」(1948), 「재회」(1948), 「혼란」(1949) 등이 있다.
- 32) 창작시기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자면 「혼란」은 갑작스러운 해방 이후 “만주를 떠날 명분을 모색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다. (김승민,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8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 33) 「친일문필거두 최남선, 이광수를 체포」, 『조선일보』, 1949.2.9.

팔선』에 실린 「모략」의 연작으로 볼 수 있는데 「모략」에서의 창규가 조선인회의 실세로 등장하는 반면, 「혼란」에서의 창규는 상대적으로 당시의 정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sup>34)</sup> 동일한 시공간의 인물을 다룸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까닭에는 「혼란」 창작 당시 염상섭의 시대인식이 개입했으리라 추정된다.

「혼란」의 주된 정쟁은 조선인회의 임회장과 한교자치회 회장인 김호진 사이에서 발생한다. “조선인회로서는 통일이 없다는 것이 타민족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sup>35)</sup>이기에 두 조직의 통합이 추진된다. 그런데 김호진은 친일파 임회장 밑에서 일할 수 없다며 현 조선인회 간부들의 총사퇴를 요구한다. 초점화자인 창규는 “이 두 사람의 감정의 갈등이나 지위의 쟁탈전”(158) 중간에 위치한다. 김호진이 임회장을 친일파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창규는 임회장을 “그렇게까지 지탄을 받을 친일파로” 보지 않는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제가 “조선사람에 대한 회유책으로 유력자만 추려서 일본사람과 같이 배급을 받게” 했으며 이때 협화회 관계자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임회장이 친일파로 여겨지게 된 까닭에 대한 화자의 설명이다. 물론 창규가 임회장의 인품이나 능력까지 고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창규는 임회장을 친일파로 몰아세우지 않는다.

또한 창규는 김호진에 대해 “나이는 아직 젊지만 이 지방에서는 원로격의 한 사람이요 광명한 그 소위 유력자”라고(157) 평가한다. 임회장은 김호진이 자신을 “친일파로 몰아 대의명분을 세우고 선전포고를”(159) 한 다며 격분하지만, 창규는 조선인회의 통합을 위해 김호진에게 부회장 자리를 주자고 임회장을 설득한다. 그렇다고 창규가 김호진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창규택의 친구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김호진 측이 부조금을 보내오자 창규는 “매수책

34) 천준화, 「해방기 염상섭 문학의 '안동 기억'의 지형도」, 『겨레어문학』 64, 겨레어문학회, 2020, 162면.

35) 염상섭, 「혼란」,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157면.

인가”(164) 의심한다. 창규의 관점에서 김호진이 친일과 척결을 주장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회 통합 국면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통합을 위한 창규의 설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주 조선인 사회의 혼란은 커져만 간다. 우선 배급 문제가 불거진다. 8.15 당일까지 일본인이 배급쌀과 술을 관리했는데 해방이 되자 이 역할을 만주인에게 넘겼는데 만주인이 조선인에게 정당하게 배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게다가 조선인회의 치안본부와 총무국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는 동안 쌀값은 한 말에 십오 원 정도에서 약 육백 원으로 격상한다. 창규댁 친구의 장례를 위해 일본인을 장의사로 고용한 창규는 혹시나 배일사상이 강한 “무지한 노동자들”(163) 장의사를 습격할까봐 걱정한다. 이처럼 「혼란」에서 등장하는 만주 조선인 사회는 인플레이션과 치안불안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민족통합의 과제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인회가 바로 조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인회는 조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형국이다.

자민족의 자치와 치안유지의 일익(一翼)으로 급급히 조직한 조선인회가 사흘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정작 동족 시민이나 피난민의 보호와 식량 확보 등 중요한 문제보다도 아침부터 주정군의 단속과 싸움 말리며 다니기에 눈코 뜰 새가 없었고 그 싸움이라는 것도 일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람끼리 아귀다툼이요 그중 일이 할은 중국 사람과의 충돌이었다.(154)

염상섭은 「혼란」에서 창규를 통해 친일파와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비판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를 설정하고, 친일파 청산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 사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치안 문제를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혼란」은 친일과 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보다 당장의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승만의 논리에 더 가까운 주제의식을 생산한다.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발표된 「혼란」을 통해 친일과 청산 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거리감각을 우회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민법이 소재로 다루지는 「두 파산」에서는 이에 대한 염상섭의 직접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난 살림이나 파산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sup>36)</sup>이라는 정례 어머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파산」에서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몰락과 옥임의 정신적 타락이 이뤄진다. 소설은 교장과 정례 모친, 그리고 옥임을 채무관계로 엮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 근처에 학용품점을 차린 정례 모친에게 교장과 옥임이 변리를 취하는 형국이다. 해방 전에 시골에서 보통학교 교장 노릇을 하다 해방 후에 “고리대금업의 패를 차고 나선”(193) 교장은 해방 공간이 건설한 경제적 주체들이 아니라 타락한 기회주의자들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빛을 내서라도 정직하게 일하고자 했던 정례 모친은 결국 학용품점을 교장에게 매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죽썩어 개 좋은 일 한 셈이라고 절통”한다.(203)

교장보다 더 인상적인 낙차를 보여주는 인물은 김옥임이다. 옥임은 “스물 예닐곱까지 도오꼬오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200) 운운하며 「인형의 집」을 읽고 엘렌케이를 숭배하며 연애를 하다가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았다. 대감은 증경 도지사, 전쟁말기 군수품회사 취체 혹은 감사역을 한 친일파다. 옥임은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호강했으며, 지금도 미제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유한마담”으로 보일 뿐 “고리대금업자로” 짐작되는 않는다. 신여성이었던 옥임이 결국 적극적 고리대금업자로 돌아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반민법이다.

36) 염상섭, 「두 파산」,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202면.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옥임이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200)

현재 옥임의 남편인 대감은 삼 년째 중풍으로 병상에 있다. 게다가 “반민자의 아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옥임은 이제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갈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라며(200) “소학교 적부터 한반에서 콧물을 흘리며 같이 자라”난(197) 옛 동무인 정례모친과 돈 때문에 아귀다툼을 벌인다.

이미 1920년대에 염상섭이 「제야」(1922)나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1923-1924)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신여성을 비판적 시선으로 그려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옥임이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는 것도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다만 신여성이 보다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로 반민법이 배치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게다가 반민족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할 옥임의 남편인 영감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이미 천벌을 받은 셈이다. 반민법이 돌올한 민족정기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여성 옥임을 악랄한 모리배로 전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두 파산」은 반민법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두 파산」에는 반민법의 역사적 의의를 변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

반민법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혼란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의미화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앞서 말했던 이승만의 담화는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두 파산」의 결말에서 정례 부친은 아내를 위로하며 “김옥임이 돈쫓 먹자만 들면 삼사십만 원쯤 금세루 녹여”낸다고(203) 말한다. 자동차에 관심이 생긴 옥임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정례 부친의 모습에서 새로운 배금주의자의 탄생을 엿볼 수 있다. 돈 때문에 엇치락뒤치락 하는 관계의 구도에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키는 삶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그리는 염상섭에게 있어 친일과 청산 문제는 당대의 최우선적 과제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난류』(1950.2.10-6.28)의 창작 시도는 적어도 염상섭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었다. 한국전쟁 직전에 연재가 시작되어 전쟁 발발로 인해 중단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난류(暖流)’라는 제목은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만약 당시 염상섭이 이 작품을 쓸 때 남북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난류’라는 제목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류』에서 염상섭은 “자기를 아낄 줄 알고, 곁 사람을 자기 처럼 아끼는”<sup>37)</sup> “새나라 새 시대”의 “이상적 새 여성”을 그리고자 했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다거나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사랑”을 뜻한다. 앞서 「두 파산」에서 옥임과 교장의 이기적 면모가 부각되었다면 이제 옥임과는 달리 이타적인 여성상을 그려보겠다는 의도 하에 염상섭은 『난류』의 연재를 시작했다.

『난류』에서는 대일무역의 혼풍<sup>38)</sup>이 불어오던 1949년 말에서 50년 초의 시기를 배경으로 정략결혼 문제에 휘말린 신여성 김덕희가 돈보다 순진한 애정을 택하는 서사가 그려진다. 덕희의 아버지는 삼한무역회사 사장인데 수입 금지로 인해 양복 값이 폭등했으나 대중들의 구매력이 부족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일무역의 길이 터질 기미”<sup>39)</sup>가 보이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일지물공사와 합자를 해서 회사의 활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전일지물공사 사장인 전태식의 아들인 전필환과 김덕희 사이에 정략결혼이 추진되는데 이에 덕희는 “정책 결혼의 제물로 바쳐질(136) 의사가 없으며 그것은 “현대여성”이자 “신여성에 대한 모욕”이라 주장한다.

덕희는 필환보다 한택진에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삼한무역회사 총

37) 염상섭, 「작자의 말—『난류』」(『조선일보』, 1950.2.2.), 한기형·이혜령 편, 같은 책, 179면.

38) 「한일통상 25일발효 통제해제자유무역실시」, 『동아일보』, 1949.12.21.

39) 염상섭, 『난류』, 글누림, 2015, 34면.

무과 중견사원이자 두 회사의 합병에 기여한 한택진은 덕희와 필환 사이에 혼담이 오가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덕희와의 관계도 정리하려 한다. 그러자 덕희는 이에 반발하며 필환에게 결혼은 이해타산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변한다.

“실지 문제나 이해타산으로만 따진다면, 병신 딸이라도 큰 회사의 전무자리를 엮어 준다면, 네 하고 담비는 것이 보통 상식이겠죠. 그러기에 상식적, 실제적, 타산적으로만 결혼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을 물질이하로 보는 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무 아니라 사장을 시킨대도 응할 수 없어요. 그만큼 자기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생활, 자기의 정신이란 것을 소중히 여겨요.”(248)

『난류』는 염상섭 문학이 친일과 숙청과 민족정기 회복의 길을 걷기보다는 모리배와 기회주의자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돈보다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난류』가 미완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신여성 덕희의 주체적 성격과 희망적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염상섭은 덕희를 통해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자아의 가치를 강조하며 배금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신여성의 긍정적 미래를 그려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덕희를 통해 형상화되는 “이상적 새 여성”은 전쟁 직전, 날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했다. 전쟁 이후 염상섭은 『난류』의 인물 설정을 거의 동일하게 차용한 『취우』(1952.7-53.2)를 연재하지만, 적치하 서울에서의 생존과 욕망 문제를 다루는 『취우』에서 신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주제의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 4. 결론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 문학은 일상성으로 함몰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중간과로서의 정치의식을 견지했던 염상섭 문학의 면모가 재발견됨에 따라 그의 문학이 쇄말주의로 후퇴했다는 논의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그럼에도 단정 수립을 통해 분단이 고착화되고 반공주의가 강화되던 상황이 염상섭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본고는 보도연맹에까지 가입해야 했던 염상섭이 민족통합과 친일과 청산 문제를 소설화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단정 수립 이후 그의 문학이 변화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하고자 했다.

우선 민족통합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단정 수립 이전에 염상섭은 「이합」(1948.1)과 「재회」(1948.8) 연작에서 중도적 인텔리 남편과 친소 사회주의자 아내의 화해를 통해 좌익과 중간과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효풍』(1948.1.1-11.13)의 말미에서 병직이 제시한 “조선학” 역시 이북과 좌익 계열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5.10 총선거와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입춘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무풍대』(1949.7.1-9.25)에서 민족통합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친일과 부르주아 기회주의자의 위선과 중간과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소설은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원영이 제시하는 “사회 결함의 병원균을 발견하는 현미경”으로서의 문학관은 『무풍대』에 서려 있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정신을 대변한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풍대』 연재는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민족통합의 주제 의식은 『소학생』에 아동문학의 형식으로 연재된 『채석장의 소년』(1950.1-6)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채석장의 소년』은 부르주아와 전쟁피난민의 통합을 서사화한다. 선량한 부르주아와 믿음만한 전재민이 둘의 바른 성품을 매개로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채석장의 소년』은 생산한다. 「이합」과 「재회」 연작, 그리고 『효풍』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전반을 아우르는 민족통합의 상상력은 『무풍대』에서 민족통합을 가로막는 반공주의와 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에게 대한 비판의식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채석장의 소년』에 이르러 그것은 선량한 부르주아와 신뢰할만한 전제민 사이의 계급적 통합으로 굴절되었다.

친일과 청산 문제 및 반민법의 소설화 양상도 살펴보았다. 이승만은 당장의 사회혼란과 삼권분립, 반공투쟁을 명분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견제했다. 「친일과의 변」을 썼던 이광수는 친일의 보편성, 반공주의, 그리고 인화(人和)를 강조하며 친일과 변론의 논리를 만들었다. 염상섭은 「혼란」(1949.1)에서 친일파 출신과 친일파 청산 주창자 사이에, 양측의 통합을 꾀하는 중립적 성격의 초점인물 창규를 배치했다. 창규의 설득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소설에서 부각되는 것은 친일파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의 정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치안불안이다.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발표된 「혼란」을 통해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거리감각을 우회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두 파산」(1949.8)에서 염상섭은 해방공간을 건설한 경제적 주체들이 아니라 속물화된 기회주의자들의 세계로 형상화한다. 신여성 옥임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타락하는 계기 중 하나로 반민법이 설정됨에 따라 소설은 반민법이 배금주의를 강화할 뿐이라는 비판의식을 생산한다. 반민법의 역사적 의의를 변론하는 목소리는 「두 파산」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후 염상섭은 『난류』(1950.2.10-6.28)에서 배금주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계산 불가능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여성 덕희를 등장시킨다. 그러나 덕희를 통해 형상화된 이상적 여성상은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외면한 것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난류』는 시대착오적인 제목의 소설이 되고 말았다. 전쟁 이후 『난류』의 인물 설정을 유사하게 차용한 『취우』(1952.7-1953.2)에서는 신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주제 의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여운형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지도자들은 분열되어 있었을지언정 대다수의 민중들은 통일을 염원했다.<sup>40)</sup> 반공주의에 경도되지 않고 통일 민족국가를 염원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민족분단이라는 현실에 대한 비관과 체념, 그리고 순응을 예감케 하는 부정적 경험이었을 것이다. 분단의 고착화와 반공주의의 강화 속에서 중간과 작가인 염상섭이 보여줬던 민족통일을 향한 역사적 상상력은 점차 위축되었다. 단정 수립 이후 중도적 정치의식을 견지했음에도 좌익으로 몰려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려야 했던 염상섭의 행로는 단순히 작가 개인의 실패와 한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간이 갈수록 중간과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의 너비는 협소해져갔고 끝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후 염상섭 문학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

40) 여운형, 「통일 전선에 낙관」, 『자유신문』, 1945.12.8.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독립신보』, 『동아일보』, 『자유신문』

염상섭, 『염상섭 전집』, 민음사, 1987.

\_\_\_\_\_,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 2016.

\_\_\_\_\_, 『효풍』, 실천문학사, 1998.

\_\_\_\_\_, 「무풍대」, 『호남신문』, 1949.7.1-9.25.

\_\_\_\_\_,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16면.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3, 소명출판, 2014.

2. 논문 및 단행본

공중구,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론」, 『현대소설연구』 6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권영민, 「염상섭의 중간과적 입장—해방 직후의 문학활동을 중심으로」, 염상섭,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김승민, 「해방 직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8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김유진, 「『소학생』의 성격 연구—학교 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김재용, 「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김재용, 「냉전적 반공주의 하에서의 민족적 통합 및 민주주의에 열망—새로 발굴된 『채석장의 소년』을 중심으로」,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글누림, 2015.

박성태, 「식민지시기 염상섭 문학의 자유주의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8.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민족의식의 의미화 양상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박현호, 「생활하는 ‘주의자들’—〈김병화전〉으로 읽는 『삼대』」,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안서현, 「曉風이 불지 않는 곳—염상섭의 『無風帶』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 이종호, 「염상섭의 자리, 프로문학 밖, 대항제국주의 안—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의 혁명’의 사선」,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 장세진, 「재현의 사각지대 혹은 해방기 ‘중간과’의 행방」,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 천춘화, 「해방기 염상섭 문학의 ‘안동 기억’의 지형도」, 『겨레어문학』 64, 겨레어문학회, 2020.
- 허중, 「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대구사학』 55, 대구사학회,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e politics of Yeom Sang-seop's literat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parate government(1948-1950)

- Focusing on national unity and the liquidation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Park, Seong-tae

This paper focused on the aspect of Yeom Sang-seop's novelization of the issues of national unity and the liquidation of the pro-Japanese fac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parate government. Through this, the influence of the solidification of divi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anti-communism on his literature was examin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eparate government, Sang-seop Yeom proposed the union of the left and the middle faction in the series *Meeting and Parting* (1948.1) and *Reunion* (1948.8). In the *Morning Breeze* (1948.1.1-11.13), the possibility of "Chosun Studies" to overcome division was proposed. However, the imagination of national unity was reduced to a critical awareness of anti-communism and bourgeois opportunists in the *Windless Zone* (1949.7.1-9.25). In *Boy in the Quarry* (1950.1-6),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national unity was refracted into class-wide unity between the good bourgeoisie and the reliable war refugees.

In *Confusion* (1949.1), Yeom Sang-seop novelized the situation in which inflation and security instability deepened due to the delay in

integration between the pro-Japanese and pro-Japanese advocates. In *Two Bankruptcies* (1949.8), he set the anti-national act punishment law as an opportunity for the new woman Ok-im to fall into a vicious usurer. Afterwards, he introduces Deok-hee, a new woman who does not compromise with golden universalism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lf in *Warm Current* (1950.2.10-6.28). However, the ideal image of a woman embodied through Deok-hee was irrelevant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which was gradually reaching extremes.

Key words: Yeom Sang-seop, Separate Government, Moderate-wing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Confusion*, *Two Bankruptcy*, *Windless Zone*, *Warm Current*, *Boy in the Quarry*

투 고 일: 2021년 8월 30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